



평면, 설치 미술가
임민정

예술인명	임민정	
소개	일상에서 발견한 요소를 바탕으로 새로운 화면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임민정입니다.	
주요 교이 경력	2016.0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석사
	2014.02	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창작 학사
	2006.02	서울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 전문학사
개인전	2020.09	<방향의 집합> 수화담 아트스페이스, 경기도 판교
	2020.07	<연약지반> H Contemporary Gallery, 경기도 판교
	2018.04	<New-Still Life> 가변크기, 서울
	2017.08	<분리된 평면> 아트스페이스루, 서울
단체전	2020.05	<케이옥션> 자선경매 케이옥션, 서울
	2019.06	<텅, 빈, 곳> Unlimited Space 프로젝트, 동숭아트센터, 서울
	2018.12	<majoongmool art market> 김리아갤러리 청담, 서울
	2018.05	<ARTSIDE WITH SIMONE MICHELI>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2017.08	<2017 아시아프> DDP, 서울
소장	2017.09	<Not Simple>, <Outline> 아트스페이스루, 서울
	2020.05	<모스버드스(Untitled)>, <ㅇ기차(untitled)> 케이옥션, 서울

프로젝트명 : <연약지반>, 2020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나의 작업은 일상적이고 소소한 물건의 형태에서 시작된다. 흥미를 유발하는 인공적인 형태와 요소를 수집, 기록하고 새롭게 배열해 다양한 질감으로 표현한다. 책상 위에 널린 종이조각, 운전하며 보는 도로 위 점선, 오류가 발생한 컴퓨터 화면, 거리에 그려진 낙서, 공사장의 널브러진 전기선, 갈라진 아스팔트까지 다양한 색과 도형, 시각 요소에서 작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에서 의외의 형태 포착하여 이를 캔버스 위에서 분리하거나 파편화시켜 이전보다 이질적이고 낮설게 구성한다.

나는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사소한 일상의 장면을 자주 포착한다. 이를테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공장에는 둥근 형태의 외벽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의 철근이 격자무늬처럼 촘촘하게 세워져 있다. 아래는 '분양문의'라고 쓰인 주황색과 노란색 현수막이 흔들리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이미지의 잔상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이전에 수집한 이미지와 작업실 바닥에 떨어진 물감과 잘려진 종이의 외곽선을 조합하기도 한다.

스스로 규칙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평면 작업을 확장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의 이야기를 실험해보고자 한다.



<틈> Mixed Media on Canvas 116.5x91cm 2020



<반묘> Acrylic on Canvas 72.7x60.6cm 2020



<오류> Mixed Media on Canvas 91.2x91.2cm 2020



<연약지반3> Mixed Media on Canvas 90.9x72.7cm 2020



<연약지반4> Acrylic on Canvas 110.5x66.0cm 2020



<연약지반5> Mixed Media on Canvas 50.0x60.6cm 2020



<툼-8> Mixed Media on Canvas 30cm 2017-2020

<Block522>



<Block524>



<Block523>

<Block521>



<Block525>



Acrylic on Canvas
22.5x27.5cm 2020



< ㄨ ㄴ ㄷ (untitled) > Mixed Media on Canvas 72.7x72.7cm 2019



<소음> Acrylic on Canvas 45.5x33.4cm 2019



<연약지반> Mixed Media on Canvas 65.1x53.0cm 2018



<부분과 전체> Mixed Media on Canvas 272.7x72.7cm 2017



< □ ▽ ▹ ▸ ◦ (untitled) > Mixed Media on Canvas 130.3×162.2cm 2017



<스ㅎ ≡ (untitled)> Mixed Media on Canvas 130.3×162.2cm 2017

주요전시 : <방향과 집합>



전시일정	2020. 09. 11 ~ 2020. 10. 18
전시장소	수하담 아트스페이스(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90-8)
전시소개	<p>다양한 요소를 배치해 새로운 시각적 화면을 실험한다. <연약지반> 연작을 기반으로 오브제를 제작하여 벽면에 설치하고 작품의 근원적인 요소를 활성화 시켰다. 유리창에는 4미터 크기의 네온 컬러 PVC 필름이 설치되어 있다. 평면적인 화면이 유리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방식에 많은 가능성을 제시한다.</p>
영상링크	

주요전시 : <방향과 집합>



주요전시 : << 텀, 빈, 곳> Unlimited Space 프로젝트>



주요전시 : <분리된 평면>



주요전시 : <ARTSIDE WITH SIMONE MICHELI>



주요전시 : <분리된 평면>

전시 서문

작가는 주변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눈에 남은 잔상과 사물의 단편적 모습에서 여러 도형의 형태를 발견한다. 오브제에서 점, 선, 면, 체 등 다양한 형식의 도형을 분리한 다음 선택적으로 캔버스에 끌어 오는데, 이러한 도형은 다채로운 형태, 색, 선, 움직임으로 캔버스 위에서 중첩, 나열, 재배치된다. 선별된 이미지가 작가라는 매개를 거쳐 추상적인 형태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실재하는 요소들은 캔버스 위 가상의 공간이라는 또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이들은 마치 원래 하나였던 양 어우러지기도, 화면 밖을 벗어나기도, 아슬아슬하게 겹치기도 하면서 제 각기 노닌다. 본래 피사체의 형태와 가치를 잃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표현에 집중하며, 깎아 자른 단면, 흘날리는 점, 흘러내리는 물감의 마티에르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화면에 자리 잡는다. 이렇게 작가는 기존 사물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본래의 목적 너머의 형태를 읽어낸다. 현실에서 한 번쯤 봄직한 이미지가 작가의 시각을 거쳐 전혀 새롭게 태어난다. 여기서 임민정은 그들에게 특정한 역할이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형태와 색 등에 주목해 이미지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한다.

실재하는 사물과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를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작품 제목이다. 작품 제목은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캔버스 위를 떠다니는 도형처럼 그저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작품의 화자는 작가가 아니다. 작가는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할 뿐, 각각의 요소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번 전시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도형은 작가가 세워놓은 질서 안에서 제각기 새로운 이야기를 생성한다. 작가는 화면의 점, 선, 면, 추상화된 형상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캔버스 속 세상은 관람자의 해석에 따라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간다. 임민정은 자신이 만들어낸 화면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건 관람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백아영

주요전시 : <분리된 평면>

언론보도 스크랩 (2017.08.21 세이프타임즈)

[전시] 임민정 국내 첫 개인전 '분리된 평면'

문예진흥기차 | 승인 2017.08.21 16:04 | 댓글 0

세이프타임즈



갤러리아트스페이스 '루' 8월 22일-9월 18일



▲ 임민정_분리된 평면_Mixed Media on Canvas_72.5x72.5cm_2015

갤러리아트스페이스 '루'는 2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임민정 국내 첫 개인전 <분리된 평면>을 연다.

만들어낸 화면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건 관람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분리된 평면'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10번지 Park110 빌딩 아트스페이스 '루' (www.artspaceloo.com)에서 만날 수 있다.

입장료와 관람료는 없으며 관람시간은 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토·일·공휴일은 휴관한다. 관람문의 ☎ 02-790-3888



▲ 임민정_평면탈구_Mixed Media on Canvas_112.1x112.1cm_2016

갤러리 '아트스페이스 루'는 2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임민정 국내 첫 개인전 <분리된 평면>을 연다.

임민정은 "그들에게 특정한 역할이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형태와 색 등에 주목해 이미지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실재하는 사물과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를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작품 제목이다. 작품 제목은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캔버스 위를 떠다니는 도형처럼 그저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kr>)